국화 옆 활짝 핀 동심 26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2016년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전시회'에서 체험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활짝 핀 꽃을 구경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다음달 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대국, 소국 등 형형색색의 60만송이 국화가 전시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총장 후보 압수수색…'뒤숭숭' 광주교대

교원양성대학 사업 연구비 일부 횡령 혐의
부적절 인사 후보 선정…이미지 실추 불가피

광주교육대가 총장 후보의 연구비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총장 공석(空席) 사태가 빚어진데다, 대학을 이끌어갈 총장 후보의 비위로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대학은 발칵 뒤집혔다. 부적절한 인사를 총장 후보자로 선정한 데 따른 대학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해졌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광주교대 7대 총장 후보로 선정됐던 A 교수의 연구실과 학과사무실, 개인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 관련 업체와의 거래장부, 개인용 컴퓨터 등 10여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A교수가 지난 2013~2014년 '창의인성선도 교원양성대학 사업'(1억5000만원)을 추진하면서 연구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주목한 사업은 교육부가 지난해 광주교육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집행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A 교수는 해당 사업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대 안팎에서는 교육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지 1년 8개월이나 지난 이뤄진 수사인데다, 교육부가 A교수에 대한 경징계 처분 외 별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뒷북' 수사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이달 초 신빙성 있는 첩보를 얻어 내사를 벌이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며 "수사 지시를 받은 바 없고 경찰 수사와 교육부 감사는 별개"라고 밝혔다.

교육대는 종일 뒤숭숭했다. 총장 공석사태로 인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총장 후보로 선정했던 교수가 비위 의혹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망신'을 당했다. 여기에 교육부 징계 처분 이외의 다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면서 학교 관계자들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학 총장 후보 문제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도, 학교측이 후속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지 못한 채 "대답하기 어렵다, 논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학교측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교원 무단 해외여행에 불법 외국어 강좌 개설

교육부 광주교대 감사…부적정 사례 28건 경고·주의 조치

교원들의 무단 해외여행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어·중국어 과정 개설까지.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광주교육대에 대한 감사 결과다. 대학 측의 부적정한 업무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광주교육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인사·복무(6건) ▲예산회계 연구비(9건) ▲입시·학사(8건) ▲시설·기자재·학교안전(5건) 등 2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교대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3명의 교원이 총장 또는 부서장 승인 없이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감사에서 적발돼 교수 등 23명이 경고·주의를 받았다.

A교수 등은 10차례에 걸쳐 운영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 및 교직원을 포함시켜 경비 407만1000원을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또 2012~2014년 공모절차 없이 교원 60명이 신청했던 학술논문 182건을 연구비 지원과제로 선정, 관련 서류 확인도 없이 최대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한 사실도 밝혀내고 7명을 경고·주의 조치했다.

교육대는 아울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유·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과정을 1년간 불법 개설하는가 하면, 학과장이 배우자를 소속 학과 시간 강사로 추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대는 또 2012~2014년까지 부설 2개 초등학교에서 24회에 걸쳐 학생수련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학생 안전관리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하남산단 도금업체 화재
폐수 2.5t 하수구 유출

26일 자정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도금업체에서 불이나 이 회사 폐수 저장조 안에 있던 폐수 일부가 하수구로 유출됐다.

이 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장돼 있던 폐수 4t 중 2.5t이 화재 진압용 물과 섞여 도로와 하수구로 유출됐다.

염산과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폐수 일부는 하수구 등을 통해 광주 제1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주변 하천이나 토양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광주시는 파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49	달뜸	03:23
해짐	17:43	달짐	16:05

교통 안전 주의

아침에는 안개, 낮에는 연무·박무가 끼는 곳 있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림	12/20	보 성	흐림	10/18
목 포	흐림	14/19	순 천	흐림	14/20
여 수	흐림	16/19	영 광	흐림	11/19
나 주	흐림	10/20	진 도	흐림	13/20
완 도	흐림	14/19	전 주	흐림	11/21
구 례	흐림	9/20	군 산	흐림	11/19
강 진	흐림	11/20	남 원	흐림	9/20
해 남	흐림	10/20	흑산도	흐림	15/18
장 성	흐림	10/1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동~남동	0.5~1.0
	먼바다	북~북동	1.0~2.0	동~남동	1.0~2.5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먼바다(동)	북동~동	1.5~2.5	북동~동	2.0~3.0
	먼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12	12:11
	17:30	--:--
여수	00:57	13:07
	07:15	19:21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높음

◇ 주간 날씨

28(금)	29(토)	30(일)	31(월)	11/1(화)	2(수)	3(목)
12/20	11/16	7/16	8/17	9/16	7/15	7/15

광주·전남 올 겨울 눈·비 적다

주말 비온 뒤 기습 추위

올 겨울은 눈이나 비가 적게 내리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온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다음달 광주·전남지역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운데 대륙 고기압 탓에 일시적으로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기온은 평년(9.6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48.2㎜)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12월에는 맑고 건조한 가운데 기온 변화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1월 기온은 평년(1.5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이지만 찬 대륙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28일 광주·전남지역에 한차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4~12도, 최고기온 17~20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인기자 kki@

보건소화장실 용변 여성 엿봤는데 성범죄 아니다?

공중화장실 범위 벗어나
광주지법 "건조물침입죄"

보건소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의 행위는 성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대신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행위는 성범죄가 아닌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훔쳐본 것이라며 성범죄를 주혐의로, 화장실 관리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며 건조물침입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했다.

최근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의 행위에 대해 유죄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는 이유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대한보청기 DAEHAN HEARING AID www.maxo.co.kr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